

특별호

# 민주화운동 영화 속 가해자와 용서

임인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한국근대사 전공.  
개화기 사립학교 설립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대 노동선교,  
영화사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 인물DB”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가해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영화를 주된 소재로 설정하여 가해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가해자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영화의 재현 방식은 대중들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는 원칙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들어가며

2023년 3월 31일 국립 5·18 묘지에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참배하며, 5·18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식에 참석하였고, 오월심리치유 이동센터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

오늘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온 마음과 몸을 희생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원 올림.

그보다 앞선 2월 19일 (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이하 특전사동지회)는 일부 5·18 공법단체와 대국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6월 3일 특전사동지회는 국립 5·18묘지의 참배를 시도하다가 광주·전남의 시민사회단체 및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의 항의로 인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해산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최종결정권자였던 전두환, 그리고 광주에 투입되어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특전사들은 모두 개인과 집단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하며 국가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사에는 집단학살, 의문사, 사법살인 등 다양한 방식의 국가폭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sup> 국가 체제의 수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명목이 우선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예우는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 김석용. 2019. "국가폭력 가해자 불처벌이 유가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5·18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2호, 39.

2 정일영. 2020. “국가폭력 이후의 사면: ‘가해자의 관용’과 ‘피해자의 용서.’” 『한국사학사학보』 42, 77.

## 영화가 민주화운동 가해자를 그려내는 방식

3 그보다 앞서 진행되었던 4.19혁명을 주된 소재로 하는 영화는 아직까지 제작되지 않았다. <효자동이발사>(2004)의 극 초반부의 시대 상황이 4.19 전후이긴 하지만, 이 영화 역시 4.19혁명을 주된 시기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4 “5.18 영화 ‘꽃잎’ 금남로 촬영현장 시민·학생 등 5천여명 처절한 그날 재현”, 『한겨레』, 1995/10/3

용서와 화해의 문법이 어그러진 것은 전두환 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자들을 사면하면서부터였다. 가해자였던 국가가 관용을 베풀어 구속자들을 사면하였고, 정부와 언론, 시민들이 이를 새출발, 단결, 통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모순을 용인하게 된 것이다.<sup>2</sup> 이는 1997년 국가가 국가폭력의 최고 책임자를 사면하는 모순으로 이어졌고, 결국 민주화운동 관련 사면과 용서가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는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양한 스토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여러 민주화운동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소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영화라는 대중문화의 한 장르를 통해 5.18을 비교적 익숙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작되는 영화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광주를 기억하고 재현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영화 중에서 가해자를 극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몇 개의 작품을 통해 가해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라고 하는 특정한 감정, 혹은 행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영화의 소재, 혹은 배경으로 많이 사용되었다.<sup>3</sup>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최초의 영화는 단편영화인 <칸트 씨의 발표회>(1987)로 알려져 있다. 이정국 감독의 데뷔작인 <부활의 노래>(1990)는 극장에 상영된 최초의 5.18 관련 영화로, 5.18 전후에 활동했던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990년대 들어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대표적인 영화는 장선우 감독의 <꽃잎>(1996)이었다. 이 영화는 제작 과정에서 역사적 현장인 금남로에서 촬영한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촬영 당시 실제 광주시민 5천여 명이 시위현장 촬영에 참여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다.<sup>4</sup>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었던 <화려한 휴가>(2007), 5.18 피해자의 후손들이 직접 최종결정자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의 <26년>(2012),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와 택시기사 김사복의 이야기를 다룬 <택시운전사>(2017) 등이 개봉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끈 바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영화들은 대부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등장하는 참여자 혹은 피해자를

극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반대편에 위치한 집단은 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했던 국가권력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희생되었거나,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선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서사 구조를 가진 영화들도 제작, 개봉되었다. 5.18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다가 여고생을 살해한 뒤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물을 그린 <박하사탕>(2000)과 5.18 진압에 동원된 공수부대원이었던 포크레인 기사가 과거의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포크레인>(2017)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하는 입장에 있었던 가해자인 군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또한 12·12 군사반란의 전체 과정을 그린 <서울의 봄>(2023)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의 최종결정권자였던 가해자를 극 전체를 주도하는 주인공으로 설정하였다.

<박하사탕>은 주인공의 20여년의 삶을 7개의 챕터로 나누어 시간의 역순으로 배열하는 독특한 구성을 시도했다.<sup>5</sup> 영화평론가들과 대중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중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등 다양한 국내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박하사탕>을 다룬 많은 언론 기사들과 연구들은 대부분 역사와 사회의 폭력에 희생된 주인공 개인의 삶에 주목했다. <박하사탕> 이전의 영화, 문학에서의 광주가 ‘피해자’이며 ‘항쟁자’의 처지에 있었던 반면, <박하사탕>은 그 반대편에서 있었지만, 동시에 ‘폭력과 광기의 역사’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희생자인 ‘권력의 하수인’의 눈을 통해 역사를 거꾸로 바라본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sup>6</sup>

한편 <포크레인>은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인공 김강일이 포크레인을 타고 자신의 동료와 지휘관을 찾아나서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직접적으로 광주의 현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당시의 폭력과 죽음의 주제를 전달한다. 이 영화는 제 21회 탈린 블랙나이트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에큐메니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하사탕>과 <포크레인>은 모두 가해자였던 주인공이 “사실상 역사적 소용돌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실제 <포크레인>을 연출한 이주형 감독은 “계엄군이든 학살당한 시민이든 모두가 피해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sup>7</sup> 그러면서 군인들도 자유의지가 아니었으며, 소위 빨갱이를 잡기 위한 진압이 나중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밝혀지면서 살인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설명하였다.<sup>8</sup> 이러한 연출자의 인식은 가해자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는 원칙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5 허문영. 1999. “한 사내의 20년에 걸친 개인사, <박하사탕>.” 『씨네21』 1999년 12월호

6 김영현. 2000. “거꾸로 비친 우리 삶의 황무지, <박하사탕>.” 『씨네21』 2000년 1월호

7 이선필. 2017. “전두환 앞에서 진압당한 김기덕의 영화, 의미 있는 질문.” 『오마이뉴스』 2017/07/21

8 싱글리스트. 2017. “[인터뷰] ‘포크레인’ 이주형 감독 - 반성의 시대, 우리는 모두 피해자.” 브런치스토리

## 가해자를 향한 용서는 강제할 수 있는가?

9 “이창동의 <밀양> ②  
이창동 감독, 영화평론가  
허문영 대담.” 『씨네21』

한편 <서울의 봄>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이에 맞섰던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의 대립을 통해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 중 상당수가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라는 점은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들에게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과제에 대한 한 가지의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봄>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영화를 관람한 후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이 기존의 영화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관객들이 <서울의 봄>을 보고 난 뒤에 스마트워치의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SNS에 인증하는 “심박수 챌린지”의 유행은 영화를 통해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분노’였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박하사탕>과 <포크레인>의 가해자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용서라고 하는 행위가 주된 서사로 표현된 영화 중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되었던 것은 영화 <밀양>(2007)이었다. 이 영화는 큰 호평을 받으며 칸 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개신교에서 ‘회개’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행위를 소재로 삼은 이 영화로 인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었다. 이 영화는 앞서 <박하사탕>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었다. 이창동은 한 인터뷰에서 <밀양>의 모티브가 되었던 1988년 소설 <벌레 이야기>를 읽고 광주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청문회에서는 광주학살의 원인과 가해자를 따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화해하는 공론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 <벌레 이야기>에는 광주에 관한 내용이 암시조차 없는데도 나는 광주에 관한 이야기로 읽었다. 그 소설이 독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에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라고. 그리고 가해자가 참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 것이냐. 다른 한편으로는 이창준 소설의 큰 미덕인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을 느꼈다.<sup>9</sup>

우리 사회는 용서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용서는 피해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복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

10 이다운. 2019.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영화적 기록 - <박하사탕>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2, 329.

## 나가며

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용서할 것을 요구한다.

<박하사탕>이 개봉했을 당시 가해자였던 진압군에 초점을 맞추어 5월의 광주를 복기하려 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를 향한 정당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진압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시의적절한가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sup>10</sup> 그런데 당시의 비판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오히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 등과 맞물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주장으로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나치 전범을 추적해 심판대에 세운 유대인 시몬 비젠탈의 이야기를 다룬 책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에서는 가해자들의 사과없는 용서가 가능한지, 그 어떠한 범죄도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아픔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최근 광주의 한 지역신문은 '5.18 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의 대국민 공동선언을 폐기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오월단체와 시민사회와의 갈등까지 불사하며 강행했던 공동선언을 1년도 되지 않아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한 중요한 이유는 공동선언이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5.18 학살 세력을 포용한다는 의미로 왜곡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결국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유족과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그 온도 차는 매우 크다. 한국 사회는 어쩌면 아직까지 용서에 무지한 것은 아닐까? 용서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닐까.

### 참고문헌

- 『씨네21』, 『오마이뉴스』, 『한겨레』
- <박하사탕>(2000), <밀양>(2007), <포크레인>(2017), <서울의 봄>(2023)
- 김석웅. 2019. "국가폭력 가해자 불처벌이 유가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5·18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2호.
- 이다운. 2019.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영화적 기록 - <박하사탕>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2.
- 정일영. 2020. "국가폭력 이후의 사면: '가해자의 관용'과 '피해자의 용서.'" 『한국사학사학보』 42.

## 민주화운동 영화 속 가해자와 용서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민주회 운동기금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ikd@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